콜롬비아 좌파 승리에서 세 개의 순간들

이반 올라노 두케

미겔 데 우나무노상 수상 작가

원제와 출처: Iván Olano Duque, "Tres momentos en el triunfo de la izquierda colombiana", *Nueva Sociedad*, No. 300, julio–agosto de 2022, pp. 4–13.

핵심어: 민주주의, 좌파, 프란시아 마르케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구스타보 페트로 정부는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의 민중 정부이자 좌파 정부다.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는다. 200년의 콜롬비아 공화국 역사에서 일부 개혁적 시도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알폰소 로페스 푸마레호의 1934년 1기 정부, 또는 한 세대에 걸친 평화프로세스와 노력의 결과물인 1991년 헌법처럼 말이다. 하지만 권력은 항상 소수의 가문과 부유층 그리고 그 친인척들로 구성된 과두지배층의 손아귀에 있었다. 간헐적인 민중의 반란이 제도 내 이러한 틀을 깨지는 못했다. 현재까지는 말이다.

구스타보 페트로와 프란시아 마르케스의 승리는 이러한 역사적 관성과의 명

징하고도 극단적인 단절이다. 하지만 요행수나 선거에서의 성공적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보다는 투쟁이 누적된 결과이자 상서로운 일들이 중첩됨에 따라 달성한 성과다. 더 나아가 일종의 정치적 굴곡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굴곡은 지난 반세기 콜롬비아의 거대한 폭력의 순간(마약–무장단체의 증가와 2002년 알베로 우리베의 집권)의 일부였다가, 후안 마누엘 산토스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의 평화협정 과정에서 수많은 대중 조직들의 재개를 거쳐, 마침내 2018년부터 2021년에 걸친 보다 거대한 사회운동과 충돌로 귀착되었다. 구(舊)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와 프란시아 마르케스 부통령의 공이 적지 않은데, 그들은 말 한 마디마다 기존과 차별화되는 담론의 준거를 제시했고, 이를 통해 페미니즘, 반인종차별주의, 연금, 보건체계, 수자원관리, 환경, 채굴주의 한계, 재정정의, 토지소유권, 식량주권 등의 변화에 대한 요구들을 명쾌하게 전달해왔다. 그들이 의제와 토론 용어를 정하면, 다른 후보들과 시스템 자체가 여기에 복속했다.

폭력과 불확실성이 관통하는 나라에서 프란시아 마르케스는 "풍미 있게 산다."는 것에 대해 말했고, 이는 존엄하고,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삶에 대한 포괄적 개념이다. 굶주림과 극심한 불평등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페트로는 화해와 대화에 대해, 진정한 민주주의 구축을 향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으며, 1948년 암살당했던 자유당 민중 지도자 호르헤 엘리에세르 가이탄이 말했듯 평화는 다름 아닌 사회정의를 의미한다는 점을 줄곧 상기시켜 왔다.

하지만 낡은 과두체제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언어들을 규정하고, 화해에 호소하는 행위만으로 대통령직에 선출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승리의 기저에는 일련의 문화적 긴장, 서사적 논쟁, 집단적 기억의 작동이 모두 자리하고 있다. 이 모두를 직관하고 묘사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화처럼 보일지라도 권력 관계에 뿌리내리고 있고, 파급력을 가지며, 그 역동성을 보여주는 특정 상황

들을 선별하여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페트로와 마르케스의 도발적인 연설을 넘어서 일반적 의미에서 사회변화라 규정할 만한 현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세 개의 순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거리를 쓸고 있는 한 청소부

1차 투표를 한 주 앞두고 메데진의 한 중상류층 주거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남자가 후면유리에 페데리코 구티에레스(우리베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던 우파 유력 대선 후보)의 홍보물을 부착한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길거리에서 공공청소업체 소속의 한 여성 청소부를 보게 되었다. 그녀가 끌고 다니던 쓰레기 이동수거함에는 구스타보 페트로와 프란시아 마르케스의 작은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었다. 남자는 차를 세우고, 그저 거리를 쓸고 있을 뿐이었던 여자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듯한 태도로 핸드폰을 꺼내들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격적인 말투와 위압적인 자세로 그녀를 힐난하기 시작했다. "누가 당신에게 이 홍보물을 붙이고 다니라고 했어요?" 형광밴드로 장식된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여자는 거리를 계속 쓸며 답했다. "아무도요, 선생님." "당신 뜻으로 이런 겁니까?" 남자가 멸시하듯 물었다. 여자는 바닥에 떨어진 마른 나뭇잎을 쓸며 여러 차례 머리를 끄덕였다. "이봐요, 이거 아주 불법적인 거에요."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이른바 범죄라고 주장하는 현장의 증거를 선명히 찍기 위해 다가갔고, 배경에는 빗자루 소리가 계속 들렸다. 이 여성은 바리아스사(社)의 이동수거함에 이 홍보물을 붙이고 다녔다.

이 장면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마치 패러디를 연상시켰다. 큰 차를 타는

우파 남자는 대놓고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낼 모든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반면, 그녀 또는 '여자애'(니냐 niña, 가부장제와 엘리트주의가 접목된 콜롬비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노동계급 여성으로서 자신에게 부과된 비가시성과 침묵이라는 자연스러운 위치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큰 집들과 가로수길이 들어선 자신의 거주지에서 그는 분노와 공격성에 사로잡혔고, 이 여자의 뻔뻔함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현장을 녹화했다. 그녀는 매일 그랬던 것처럼 거리를 쓸고 있었고, 위협에도 품위 있게 대응했으며, 자신의 작업 용품에 구겨진 이 두 장의 홍보물을 스스로의 확신에 근거해 테이프로 직접 붙였다고 답했다.

이 동영상은 소셜 미디어에 급속도로 퍼졌다. 이 장면은 식민시대 카스트제도에 여전히 짓눌려있는 국가의 자화상이었고, 특정 집단들에게는 민중의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만큼이나 절망적인 일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선거를 한 주 앞두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정치적 상황의 상징으로 간주했고, 그 여성은 사회 대다수의 존엄을 대표하는 인물로 여겨졌다. 구스타보 페트로도 동영상에 답변을 달았는데,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이 여성이 바로 내가 내 생명까지 바칠 민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다. 그 다음 날은 1차 투표가 있기 전 마지막 대규모 선거 운동이 예정되어 있었다. 보고타의 볼리바르 광장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고, 도처에서 변화가 임박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연설 도중 페트로는 여성노동자를 조롱하던 부자 남자에 대한 동영상을 언급했다. 그는 그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 민중정부를 쟁취하는 날 저는 그녀를 제 옆에 세우고 싶습니다. 그녀가 귀빈으로 우리와 함께 서길 바랍니다. 그녀는 노동자 민중의 존엄, 이마를 조아리지 않는 자

의 존엄, 무릎 꿇지 않는 자의 존엄,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권리의 주체인 현대적 시민, 이 나라의 건국을 도왔던 친애하는 폴리카르파(Policarpa)[1]처럼 유능하고, 현명하고, 근면한 여성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엘리트주의 질서, 하층민들에게 고질적으로 가해지던 배제와 치욕의 질서에 반대하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페트로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아마도 해방신학에 대한 그의 친밀감과 빈민을 우선하는 성향 그리고 그것이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대선 1차 투표를 하루 앞둔 5월 28일 토요일, 이 여성 노동자, 켈리스 가르세스와 그녀의 아들 후스틴과 저녁식사를 위해 방문했다. 이 행위는 구체제를 향한, 더 나아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가 만든 개념으로 선거운동에서 제법 호응을 얻었던 용어인 '아무도 아닌 자들(los nadies)'을 향한 직접적 메시지였다. 한 장의 사진만이 공개되었는데, 멀리 떨어져 찍은 사진 속 그들은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가족 그리고 일상의 정치화

지난 수년 간 콜롬비아에는 너무도 많은 정치적 변화와 사건들이 있었다. 그 여파로 우리는 페트로가 정치를 대중의 광장에 돌려놓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한다. 언제부터인가 정치와 선거 관련 토론은 거대 언론사들 관할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콜롬비아의 독점 언론사들에게 치안, 무장분쟁, 부패를 넘어서는 주제에 대한 논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별로 없었다.

1) 재봉사로서 콜롬비아 독립운동에 투신하다 처형된 여성(역주).

2013년 페트로는 시장으로 재임 중 시행한 공공서비스의 부분적 국유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극우파 행정 관료에 의해 보고타 시장 직위를 박탈당하게 됐는데,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대중의 의장이자 대변자 그리고 지도자로 부상했다.[2] 볼리바르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이 민중의 투표를 존중하라고 요구하고, 야심찬 사회정책을 추진하던 시장을 복귀시키라고 외쳤던 바로 그 3일간의 순간이었다. 시사저널 『세마나』(*Semana*)의 첫 면에 제도권의 초초함이 묘사되어 있는데, 바로 페트로가 시장실에서 발언하는 사진에 "발코니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이러한 소통능력과 대중적 매력이 우연히 알려진 덕분에 2018년 페트로와 인간다운 콜롬비아당(Colombia Humana)의 정치 프로젝트가 전국의 광장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두 번, 아니 세 번까지도 말이다. 거대 언론들은 그 현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가 그 역할을 했고, 사회정의에 대한 그의 연설이 너무도 큰 파급력을 일으킴에 따라 다른 후보들 역시 그를 언급하며, 그의 주변을 맴돌게 되었다.

이번 2022년 선거 운동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다운 콜롬비아당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전선을 형성하려는 시도인 역사적 협약(el Pacto Histórico)과 함께 하면서도 그의 전략은 마찬가지였다. 다름 아닌 민중의 광장, 거대한 군중, 중소규모 도시, 길고 교육적인 연설들이었다. 더 나아가 그는 새로운 주류를 형성하고, 새로운 상식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를 듣게 하고, 그렇게 광장에서 언론 장악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4년 전 지원이 부족했던 전국 각 지역에 더 많이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앞둔 마지막 몇 달에 걸쳐 페트로는 콜롬비아 전국의 약

2) Arturo Wallace: "Destituyen e inhabilitan por 15 años al alcalde de Bogotá, Gustavo Petro", en *BBC Mundo*, 9/12/2013.

130개 광장을 채웠고, 그곳에서 연설을 했다. 일종의 마라톤이었고, 고단한 여정이었다. 하지만 독점 언론들과의 긴장감도 조성되었는데, 거대 언론들이 거의 매일같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몇 주간 후보가 불참하는 상황들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명료했다. 그는 이미 토론에 참여했고, 선거를 앞둔 마지막 날들에도 다시 토론의 장에 설 것이었다. 하지만 페트로가 그의 마지막 한 달을 언론들에 할애한다면 다른 후보자들과 진행자들 모두가 그를 무너뜨리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적의 본거지에 머물게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시들의 광장에 방문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올바른 결정이었다. 광장들은 가득 찼고, 페트로가 불참한 토론들은 시청자가 없었다.

이것이 1차 투표에서 어떻게 승리에 도달했는지 과정이다. 구스타보 페트로와 프란시아 마르케스를 선택한 850만 명의 투표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 2주간의 이변으로 로돌포 헤르난데스가 2차 투표에서 그의 상대가 되었다. 로돌포는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백만장자 기업인으로, 폭압적 태도, 권위주의,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무지로 악명 높다. 하지만 그는 SNS를 통한 정치 마케팅과 "부패한 자들에게 회초리를 들자"며 부패를 종식시키겠다고 집요하게 외친 결과 성공적으로 부상했다. 2차 투표를 앞두고 몇 주간 페트로의 전략은 어땠어야 했을까? 광장은 이미 소진된 듯했다. 이미 대중을 불러 모았고, 몇 시간에 걸쳐 연설을 한 상황이었다. 지적인 동시에 분별력 있어야 했던 바로 이 결정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승리를 압축하고 설명하는 두 번째 순간이다.

광장, 연설, 대중, 이와는 완전 정반대 결정이 내려졌다. 2주 동안 페트로는 전국 노동계급의 가족들을 방문해 대화하고, 한 상에 앉아 함께 식사하기로 결정했다.

금요일, 막달레나 해안의 어부 아르눌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일정을 시작했다. 다음날 새벽 몇 시간 동안 강에서 그와 동반했고, 그 다음 그 가족들

과 대화했다. 그날 오후 화훼농들의 가족과 저녁 식사를 위해 메데진으로 떠났다. 월요일에는 보야카의 소규모 광산 광부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 모두가 다리에 스튜(olla)를 올린 채 긴 테이블에 걸터앉았다. 그들은 에너지 전환 계획에 대한 의구심들을 해소했고, 광산으로 함께 내려갔다. 수요일에는 콜롬비아에서 빈곤율이 높은 도시인 큅도에 거주하는 헤노베바와 그 자녀들의 집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저녁 식사를 위해 바나나 튀김 요리를 도와주고, 그 집에서 취침한 후 다음날 샤워기 물이 나오지 않아 바가지로 목욕을 했다.

콜롬비아의 남과 북 방방곡곡을 오가며 이렇게 여러 날들이 이어졌다. 1차 투표 전에 그의 일정은 광장에서 광장으로 채워졌던 반면, 이제는 식탁에서 식탁으로, 가족에서 가족으로 대화하고, 근로 현장을 함께 하며 채워졌다. 언론 취재는 제한적이었고, 막판 승부에서 대중을 포기하는 것은 착오라는 불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 모습들에는 선거운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반 두케와 알바로 우리베, 에르난데스 후보, 그리고 콜롬비아 지도층 거의 모두와 달리 페트로는 서민 거주지에 관광객으로서 방문한 것이 아니었고, 마체테 칼을 집어 들었고, 분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도구로서 고무장화를 신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머지 모두와 달리 페트로는 콜롬비아 노동자 계급의 일부가 되었고, 따라서 아무도 그가 선거 운동 중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음에도 그 상황에서 그의 행동은 잘못되거나 위장으로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노동계급에 속해 그들을 대변한다는 메시지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목표는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정치는 위대한 대중 연설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 매일 접하는 공간에, 대화하고, 일하고, 요리하고,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한 시간들에 있다는 사실을 숨 가쁜 국면에서 콜롬

비아 전역으로 전파했다. 이렇게 이 모든 개별적인 특수성들에 공통된 이야기를 부여하고, 행동의 지평을 제시할 수 있었다.

딜란 크루스의 어머니

2019년 11월 21일, 두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사회 지도자들 암살에 반대하여 평화를 수호하는 전국대파업이 시작됐다. 전국에 걸쳐 그 여파가 대단했기 때문에 콜롬비아에서 이에 버금갈 가장 근래의 경험, 바로 1977년 전국시민파업에 대한 언급이 공공연해졌다. 이어 여세를 몰아 이듬해 2020년에는 경찰 폭압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그 다음 해인 2021년에는 사회적 대충돌(반세기에 걸쳐 가장 큰 규모였을)이 전개되었다. 두케 정부의 대응은 도시들을 군사화하고, 시위 불법화 담론을 확산시키고, 경찰에 시위대를 피와 총으로 억압할 길을 자유롭게 터주는 것이었다.

그 해 2019년 11월 23일, 보고타 한복판에서 시위진압기동대(ESMAD) 지휘관이 치사성을 낮춘 엽총으로 딜란 크루스의 머리를 쐈다. 희생자는 18세 청년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이틀 앞둔 상황이었다. 똑같은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고, 경찰에 의해 청년들이 다치고, 팔다리가 잘리고, 살해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어도 십여 개의 카메라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현장을 기록하던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들 중 하나에서 시위진압기동대의 부대원들이 총기 발사 직전에 "누가 됐던 이제! 갈겨! 갈겨!"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딜란 크루스는 이틀간 위독한 상태에 있었다. 작은 금속 공들이 담긴 천자루(치사성을 낮춘 탄약)가 뇌에 박혔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켜봤고, 그는 시위의 상징이자, 전쟁에서나 시위에서나 더 많은 청년들을 쉬지 않고 암살

하는 국가의 상징이 되었다. 딜란 크루스는 보다 정당한 나라와 모두를 위한 교육제도를 위해 투쟁했고, 그의 졸업식이 있는 날 사망했다.

2022년 6월 19일 밤에 발생한 일은 이런 이유로 의미 있다. 이때 구스타보 페트로와 프란시아 마르케스는 수천 명의 시민들과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모든 방송사들이 생방송으로 현장을 전달했다. 외신들 역시 모두가 현장을 기록하며 취재 내용들을 송출하고 있었다. 모두가 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연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지 못하는 상태였다. 프란시아 마르케스가 먼저 발언했고, 이어 페트로가 연설을 하던 와중이었다. 무대에 있던 십여 명의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나무 액자에 담긴 큰 사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딜란 크루스의 어머니인 제니 알레한드라 메디나가 사진들 들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그녀의 아들 사진을 보고 조금씩 길을 비껴주었고, 마침내 그녀는 당선 연설을 하고 있던 페트로의 옆에 섰다. 그가 그녀를 보았고, 하던 말을 멈추고 그녀를 껴안은 다음, 마이크를 넘겨주었다.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생각하기에 승리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세 번째 순간이다. 딜란 크루스의 어머니는 발언하고, 무슨 일이 그녀에게 벌어졌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자의 대연설 중간에 끼어들었다. 이는 국가와 희생자의 관계에서 필요한 패러다임 전환의 증거이다. 또한 아래로부터, 희생자연합에서, 사회운동에서, 평화협상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이야기의 일부로, 마르케스와 페트로가 전국을 순회하며 수집하고 재현했던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을 부정하는 자들의 시간이 아니며, 엘리트들이 대물림한 나태에 찌든 관리자들의 시간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들 중 하나로서 수십 년 간의 무장 분쟁으로 희생자의 80%가 시민이고, 국가는 행동을 통해서든 태만을 통해서든 핵심적인 가해자가 되어왔으며, 조직적 면책, 희

생자를 침묵하게 하고 이차로 가해하는 고질적 병폐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미래의 정부들은 야만을 똑바로 직시하고, 그토록 누적되어왔던 부당함이라는 참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만큼에 해당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페트로가 그의 위대한 순간에, 모든 카메라들이 그의 말을 경청하려 대기하고 있을 때, 마이크를 딜란 크루스의 어머니에게 넘긴 건 공공 영역에서 말을 사용하는데 있어 우선순위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하위계층이 말할 때, 희생자가 말할 때, 권력자는 입을 다물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산코초

민중의, 그리고 좌파성향의 새 정부는 축적된 투쟁의 성과이자 배제로 특징지어지는 구체제의 위기가 낳은 산물이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의미에서 중요한 변혁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그 행동의 실질적 한계는 무엇이 될 것이며, 변혁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가 비록 한때는 혁명게릴라군의 일원으로 국가에 반발해 무기를 들었지만, 콜롬비아에서 페트로만큼 덜 정파적이고, 가장 강경한 적들과도 기꺼이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는 정치 지도자를 찾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편이 맞겠다. 아마도 이건 그가 정확히 M-19라는 특정 게릴라군의 일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1991년 헌법 제헌의회로부터 파생한 평화협정 과정에 참여한 유일한 단체이자, 카를로스 피사로 장군이 콜롬비아의 변혁을 위한 대담함과 상상력을 열정적으로 방어하는 동안 가까이에서 함께 했고, 더 나아가 '국민 산코초'라는 개념을 항상 언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다.

이 개념은 하이메 바테만 카욘이 주창한 것인데, 그는 M-19 공동창립자이자 사령관으로, 1983년 오전 파나마행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다리엔 밀림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며 사망했다. 카리브 지역 출신으로 활기차고, 즉흥적이었던 그는 국익을 위해 오래된 경쟁자들과 서로 다른 이념과 정치적 성향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장으로서 전 국가적 대화가 필요함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콜롬비아에서 가장 대중적인 스튜 이름에 호소했다.

2022년 이번 선거 운동에서 페트로는 2018년에 그랬던 것보다 한층 더 나아가 심지어 우파와 극우파 세력들까지 포괄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자들에게 콜롬비아의 사회정의를 위한 거대한 협약에 동참할 것을 끊임없이 호소했다. 그가 구성한 연합체의 이름이 역사적 협약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협약은 콜롬비아의 화해와 현대화를 위한 또 다른 상징적 깃발이자, 전직 대통령의 아들로 1991년 헌법 제정에 참여했던 보수주의자로서 1995년 암살당한 알바로 고메스 우르타도가 주창했던 본질에 대한 협약(el pacto sobre lo fundamental)으로 상호 보완된다.

페트로는 이러한 생각을 선거운동 내내 고수했고, 이에 따라 그의 정치적 프로젝트에 구체제 인사들을 수용했다. 더 나아가 우파가 항상 그랬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반대파들에게 나리뇨궁(Casa de Nariño, 대통령실)의 문은 대화를 위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또한 이런 이유로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첫 며칠간 그는 패배한 후보였던 에르난데스뿐만 아니라 우리베 전 대통령과도 회담을 가졌다.

여기에서 새 정부의 강력한 힘을 찾을 수 있다. 모두 국민 산코초에 환영하며, 협조는 가능하며, 다름 속에서도 본질에 대한 협약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 편으로 이는 한계이며, 동시에 취약성에 대한 암묵적 인정일 수 있다. 대화하고, 제도 내에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게 하는 건 좋은 일이

다. 비록 서로 다른 이념과 정치적 전통을 고수하더라도 실행력을 가진 개인들이라면, 그들에게 정부의 공간을 개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전쟁에 익숙해진 나라에서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 폭력적인 환경이 아닌 제도적 환경에서 서로를 경청한다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정치, 또는 현실은 상충적인 것이다. 집단적 포용의 위대한 호산나가 보수주의 사기를 충족시키고, 일부 적대적 담론들을 중화시킬 수도 있지만, 행동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축소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기도 한다. 게다가 무언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신기루에 불과하다.

조만간 개혁에 착수하고, 신자유주의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구체적 조치들을 통해 거대한 권력들이 위협받게 될 때, 바로 그때 화해와 통합의 모든 틀과 껍데기는 떨어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정한 힘의 축들이 드러날 것이다.

콜롬비아의 혁명가

구스타보 페트로는 긴장과 취약성을 의식하고 있다. 보고타 시장 시절 그는 이미 그걸 겪어봤고, 그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다. 자신이 수많은 투쟁 전선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 어느 것이라도 그의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발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수년 전 한 인터뷰에서 그가 "트럭 운전사들의 한 번의 단합 행위로도 콜롬비아 정부를 전복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근에는 퇴역 장교들이 현역 장군들을 초청해 모임들을 갖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 목적은 새 대통령의 통수권을 무력화하기 위함이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게릴라 출신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은 군부 역사상 가장 큰 치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대자들의 수는 많고, 그들의 권력은 막강하다. 금융계, 전 부문의 마피아, 마약밀매조직, 독점 언론사, 대지주들... 그들은 확실한 약점을 찾는 즉시 새 정부의 목덜미를 잡아챌 것이다.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 때문에, 선거가 있기 몇 달 전부터 페트로는 혁명 없이도 콜롬비아에 새 시대를 열게 될, 마침내 정치적 폭력을 떨쳐버리고 일련의 근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이행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진정으로 원대한 목표라고 성찰하기 시작했다. 하이메 바테만 카욘의 또 다른 사상, "현재 콜롬비아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은 민주주의이다."와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새 정부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감히 단언하건데, 이번의 승리를 가져온 통상적 의미의 변화들은 긴 호흡의 변혁이 시작됐다는 가장 확실한 보장이며, 변혁은 구스타보 페트로와 프란시아 마르케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태동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경계는 확장되고 있고, 구체제에 작동하던 신화들은 깨지고 있으며, 권력관계는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고, 다가올 미래가 이토록 거대해보였던 적은 없다. 이런 점에서 선거운동에서 세 개의 순간들, '하찮은 자들'의 존엄성, 일상의 정치화, 공적 영역에서 희생자와 하층계급 목소리의 정당성과 호소력, 이 순간들은 의미가 있다. 역사적 승리를 넘어서, 라틴아메리카 진보주의의 새 주기를 넘어서, 이 민중의 요구는 콜롬비아에서 이미 혁명적이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정치적, 윤리적, 심미적 변화가 이미 기저에 확산됐다는 희망말이다.

강정원 옮김